

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

- 학술단체들 논문집출간 붐-峨山재단, 10주년 논문...지방행정연구, 주민실태 6권..., 中東학회, 8번째 논문집...이대 법정대 「사회과학」 7호(한국일보 4월 6일)
- '연극공연'을 책으로 -연우무대 공연극 「달라진 저승」 출간 / 공연사진 중심 대본 배열...무대 확대·수명연장 피해(한국일보 4월 6일 金龍善기자)
- 계간 「실천문학」 복간 - '민중문학의 새 立地'를 모색 / 분단문화-통일문화 특집도(한국일보 4월 9일)
- "제주 4·3폭동" 올바른 평가를 - 소설관급·시인 신행·극단 해산 등 / 재조명 시도할 때마다 시련 겪어...4·19 직후엔 '5·16', 80년 '서울의 봄'엔 '5·17'로 좌절(한국일보 4월 9일 李基稔기자)
- "국어사전 어휘만 많고 내용 미흡" - 서울대 李秉根교수 지적 / 외국어도 표제어로...두께만 늘려 / 용례 설명 불충분·뜻이해 어려워(한국일보 4월 9일 金龍善기자)
- 해외여행 붐...회화교재 불티나다 - 「관광생활영어」 「미국말시리즈」 등 인기...항공 등 서비스분야 별 용어, 현지영어 쉽게 풀이(스포츠서울 4월 9일 박연호기자)
- 文振院 원고료 지원, '전면개선'의 소리 높다 - 일부 문예지 대상...문인 90% 혜택 못받아 / 연간 예산 6억...현 출판계사정 크게 변

- 모 / 우수작품 창작지원금제로 전환 바람직(한국경제신문 4월 9일 朴聖姬기자)
- 철학동화집 어린이들 큰 호응 - 총5종 나와...1종당 월300부 팔려 / "윤리관·논리전개·사고력 배양"(한국경제신문 4월 10일 李成九기자)
- 국어사전, 낱말뜻에 따른 용례거의 없다 - 「출판저널」, 학계의 비판분석 / 정확한 어휘사용에 별도 도움못줘...英「옥스퍼드」는 '김치'에 7개의 관련 용례(중앙일보 4월 11일 李憲益기자)
- 시집 「기상도」 지형 40년만에 찾았다 - 장만영 미망인 박영규여사가 공개 / 1948년 산호장의 재판본...빛바랜 사진2장 등 고이 보관 / 30년대 시간에 英美이론 도입 / "이제야 모더니즘문학 정립"(일간스포츠 4월 11일 李滿기자)
- 주부들의 친근한 문화공간, 아파트촌 미니도서관 - 母子열람실등 갖춰 인기...하루 200~300명 이용 / 주민들 모두에 소중한 장소로...책기증 잇따라(동아일보 4월 12일 宋煥彥기자)
- "어려운 학문을 상식화" - 한길사 「기초지식시리즈」 1백여권 기획 / "과학적 인식 현실에 쉽게 적용" 목표...30여개 항목 골라 단일 주제로 묶어...비교적 쉽게 써 독자에게 친근감 줘(매일경제신문 4월 12일 文逸기자)
- 국내시판 사전 모두 800여종 - 어학, 영어 120종 으뜸...전문사전 중엔 기술과학 142종 / 20년이상 증보없이 중판...다른 책 बे끼는 등 문제점도(동아일보 4월 12일)
- 한국출판계의 현주소 <7> - 학문의 대중화작업 시도, '전산시대' 개막 / 정보·기획 과학화·전문

- 편집인양성 과제(한국경제신문 4월 13일 李成九기자)
- 음란서적 12억대 판매, 출판사대 표등 11명을 구속(중앙일보 4월 13일)
- 아동용교재 소비자 불만 급증 - 1천여 영세업 난립 불량품 양산 / 외제 그대로 베껴 생소한 내용도(경향신문 4월 13일)
- 유아용교재 마진폭 과다 - 내용도 외국 것 복사, 모방 많아(매일경제신문 4월 13일)
- 대학가서점 새 문화공간으로 등장 - '미니도서관' 마련, 다양한 행사 펼쳐 / 책읽고 토론...독후감 공모, 부정기 회보까지 퍼내 / 사회과학 책방들 앞장 번역전 독자와의 대화도(스포츠서울 4월 14일 金성호기자)
- 음란물 11억여치 판매 서점주인 등 11명 구속(한국일보 4월 14일)
- 30년대 문단 이끈 월북작가 李泰俊작품 출간 / 날카로운 현실인식 문장력 탁월...북한서도 '반동' 낙인 생사불명 / 깊은 생애서 문공부에 납본...해금여부 관심 집중(동아일보 4월 14일 高美錫기자)
- 실천시인 高銀...문단대부 30년 - 사상최대 「전집」 60권 나온다 / 시·소설·평론·에세이등 원고지 10만장 분량 / 개인사 차원 넘어 한시대 정신사 기록...5월부터 매달 2권씩 펴낼 계획(중앙일보 4월 14일 奇亨度기자)
- 아동교재 유통마진 50% - 소비자보호원 조사...외국책 복사, 모방도 많아(한국경제신문 4월 14일)
- '끝없는 영역' 만화시대 개막 - 증권, 철학까지 감칠맛나게 그려 / 컴퓨터, 외국어 등도 배우기 쉽게...현실, 정치, 선거 풍자' 대학가에 새 바람(서울신문 4월 15일 朴康文

- 기자)
- 국어사전 아직도 문제 많다 - 「출판저널」誌 특집서 교수들 지적 / 외래어 등 집중사니 나열...뜻풀이, 편집체계도 엉성 / 용례 풍부히 실어 이해 도와야(서울신문 4월 15일)
- 교단시가 늘고 있다 - 일선교사 생활 체험 / 교육현실 심각 성토로 / 애환 주류...색다른 감흥(한국경제신문 4월 16일)
- 철학동화 붐 - 일상 소재...스스로 해답찾게 / 먼저 부모가 읽고 선택할 것(조선일보 4월 19일 朴善二기자)
- "북한실상 제대로 알자", 정책 생활상 다룬 책 인기 - 경직된 반공 위주의 폭로 고발 탈피 / 공산권 교류 맞춰 객관적으로 분석(동아일보 4월 19일 宋煥彥기자)
- 월북작가 작품집 출간 잇달아 - 납본필증 없이 30여종 시판 / "문학사 정리 등 위해 단계 해금조치를"(경향신문 4월 21일 安健赫기자)
- 중공延邊작가 소설 국내출판 활발 - 한민족 정서, 풍속 생생 / 근대사, 옛 언어 숨쉬어(한국경제신문 4월 23일)
- "거리의 마약" 불량 출판물 - 국민정서 좀먹는다 / 일명 '빨간 책'...50여곳서 지하 출판 / 점조직 배급...수시 가두단속이 고작(중앙일보 4월 25일 李憲益 기자)
- 어린이 교양철학, 제5공화국 해부, 처세술·증권안내, 동구권 심층 분석, 이런 책이 잘 팔린다 - 경쟁사회 앞설 지침서, 주식투자 안내서도 불티 / 어렵고 딱딱한 철학 동화 형식으로 쉽게 풀어 큰 호응 / 궁금했던 6·29 이전 비화, 광주 사태 파헤쳐 시선 끌어 / 북방 외교 시대 맞아 베일 벗긴 동구권 관련

- 책자 부쩍(스포츠서울 4월 27일 박연호기자)
- 뿌리내리는 '제3의 언론' 사보 - 홍보용 아닌 노사정보지로 성숙 / 中企도 가세...총발행부수 월980만(스포츠서울 4월 28일 박연호기자)
- 글쓰기, 「말과 글의 특성 익혀라」 - 심리언어학자 金炳元교수 「글의 비밀」 펴내 / '생각' 옮기는 전계법 터득해야 / 비유하기 등 기본틀 10가지 자세히 설명(서울신문 4월 29일 朴康文기자)
- 재미없는 童話는 동화가 아니다 - 아동문학가 최지훈씨, 「출판저널」지 최근호서 창작동화 비판 / 상상력, 프로정신 부족 꼬집어 / 좋은 상품엔 고객 물리게 마련(서울신문 4월 29일)
- 반년새 1000개사, 새 출판사 '개업' 러시 - 자화화 이후 3천5백사 난립 / 서울 편중...단 한권 발간 않은 무실적 41% / 인력난 등 겹쳐 '저질화 경쟁' 우려도(조선일보 4월 29일 曹良旭기자)
- 20~30년대 작가 전집 발간 붐 - 근대문학 중요성 새롭게 인식 / 모두 8종...정지용, 김기림, 이태준, 현진건 등 / 작품의 재평가 작업에 큰 도움(한국경제신문 4월 30일 朴聖姬 기자)
- 해외定刊物 수입이 늘고 있다 - 1천6백85종 34만부 들여와 / 경제관계 많고 패션물은 줄어(한국일보 4월 30일 金龍善 기자)
- 20~30년대 작가전집 발간 '붐' - 근대문학 중요성 새롭게 인식 / 모두 8종...정지용, 김기림, 이태준, 현진건 등 / 작품의 재평가 작업에 큰 도움(한국경제신문 4월 30일 朴聖姬 기자)

普成社

서울·마포구 신수동 445-5 출판단지내
전화 719-0784

글 더 잘쓰기 총서

- 1 글의 비밀**
心理言語學者 / 金炳元 著
글은 누구나 더 잘 쓸 수 있다. 그러나 어떤 글은 다스려야 할까. 필요한 비밀을 깨쳐야 한다. 저자는 그의 다년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그 비밀을 철저히 공개하고 있다.
값 3,500원
- 2 논픽션 쓰는 법**
헤이즈B. 제이콥스 / 金炳元 著
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즐겁게 해주는 논픽션을 구성하는 일은 하나의 예술이다. 독자는 이 예술을 터득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작가인 제이콥스와 만날 것이다.
값 4,000원
- 3 소설의 방법과 인식**
伊藤整 / 李基炯 著
전후두세대의 문학과 인식이 일시에 태풍처럼 불어닥친 일본 문단에서 저자는 그 두 사조를 수용 비판 소화하여 일본적 문학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. 일본 전후의 명저로 뽑힌 책.
값 4,500원
- 4 추리소설 쓰는 법**
미국추리소설작가협회 / 高廷基 著
추리소설은 문학의 장르중에서도 특히 흥련받은 재능과 구성의 센스가 요청된다. 이 책은 미국의 대표적 작가들의 저나라 한 문학 수업의 체험과, 추리소설의 골격이 되는 네 가지 요소의 관계를 들어가며 상상하게 서술한다.
값 4,500원
- 5 동화 쓰는 법**
리와인자 / 李相琴 著
특히 저자는 아동심리학과에 주안점을 두고 아이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세계를 묘사할 것과, 동화를 쓰기 위해선 어떤 자료를 모으고 이용할 것인가 등을 저자, 편집자, 독자의 입장에서 친절히 정리했다.
값 4,500원
- 6 그림책 쓰는 법**
엘렌E.M로버츠 / 金正 著
이 책은 그림책 쓰기의 이론이다. 그림책 작가의 지망생은 물론, 이미 노력한 작가라도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. 그림책의 원작, 기법, 그림책의 효용 등을 체계화했다. (원색그림다수수록)
값 5,000원
- 7 주부작가로서 성공하는 법**
엘렌F. 심버그 / 고영기 著
바른손안의 가정, 원순애가사(家事), 그리고 또 하나의 손으로 작가로서 훌륭히 활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.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를 한 주부로서 가정의 행복을 꾀는 일 없이 문장을 쓰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한다.
값 5,000원